

소방공무원의 사건충격에 미치는 영향요인

- 구미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

김희숙*, 박경란**, 이호진***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사건충격에 미치는 우울 스트레스대처방식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소방공무원의 사건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정신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구미시의 소방공무원 135명이었다. 사건충격척도와 우울, 스트레스대처방식 척도를 사용하여 2011년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건충격은 성별에서 남성이고 결혼 상태는 기혼이며, 충격적 사건 경험이 한주에 3회 이상인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우울은 평균 5.1(±5.94)점, 스트레스대처방식은 전체 평균 26.8(±13.13)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문제해결20.1(±9.72)점 조력추구6.7(±3.86)점이었다. 사건충격의 평균은9.0(±10.37) 하위영역별로는 과각성 1.8(±2.78)점 회피는 2.5(±2.99)점 침습은 2.8(±3.15)점, 수면장애, 정서적 마비, 해리증상은 1.8(±2.33)점으로 나타났다. 사건충격과 우울 간에는 정 상관으로 나타났다($r=.52, p<.001$). 사건충격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는 우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beta=.52, p<.001$), 여성($\beta=-.19, p=.009$), 및 충격적 사건경험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였으며($\beta=.16, p=.034$), 설명력은 43%였다. 따라서 남자소방공무원들이 우울 정도가 높고 사건횟수 경험이 많을수록 사건충격 정도가 높음으로 평상시 우울과 스트레스에 효과적인 대처방법과 전략을 익히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사건충격을 많이 경험하는 부서에서는 단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출동으로 사건경험 후 돌아오는 즉시 시행되는 미국의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CISM)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매번 사건 충격완화를 시킴으로써 사건충격이 축적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소방공무원, 우울, 스트레스 대처, 사건충격

1. 서론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인적, 자연 재해 역시 급증하

* 제1저자, ** 공동저자, *** 교신저자.

고 있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업무에 대한 부담과 사건충격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증가하고 있다. 화재진압은 물론이며 재난현장의 최 일선에서 현장을 수습해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적신호는 이미 여러 연구(김윤정, 2011; 유지현, 2006)에서 그 위험성이 증명되고 중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재해와 재난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관련 법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 인력을 체계화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중심에서 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윤예심, 2008). 다양한 업무에서 나타나는 유해인자와 위험요인은 소방공무원들의 신체적 위험은 물론 정신적 외상을 일으킬 수 있다. 각종 사고와 재난 상황에서 인명구조, 부상자의 응급처치 및 후송, 재난 수습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은 외상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많은 수의 소방공무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의 위험성에 처해있다(최혜경, 2010). 소방공무원들의 늘어나는 업무량만큼 업무에서 오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 소방업무의 특성에 따른 우울, 끔찍한 현장경험에 의한 사건충격 등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소방공무원들은 직업병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며 물리적 직무환경이 공, 사상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피로의 누적과 구조, 구급업무의 특성상 항상 비상 대기 를 해야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다(김광석, 2008).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은 직무스트레스와도 연관이 되며 여러 연구에서도 소방공무원의 직업에 관한 직무스트레스(이상구·이용규, 2007)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삶의 질과 직무스트레스 요인(이경진 외, 2009)에 대한 중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직무스트레스 외에도 반복적인 끔찍한 현장에서의 경험은 실제적으로 신체에 위협을 당하지 않더라도 최초목격자 및 수습자로서의 사건충격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는 물론 인적 재난에도 상시 투입되는 소방공무원들은 끔찍한 참사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일차 구조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해 외상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유지현, 2006). 반복적인 노출과 일차적 접촉하는 대상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외상보다 강한 강도와 오랜 시간동안 사건충격에 빠져있다(최명옥, 2009).

지속적인 외상노출과 심리적 취약성은 만성피로감, 무력감, 죄책감등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인 우울상황과 소진을 일으킬 수 있다(유지현, 2006). 실제로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반복적인 사건충격으로 인한 충격사건에 대한 기억이나 꿈, 출동 동시의 수면장애 정서적 불안, 이전보다 예민해지고 무력해지는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최은숙, 2000). 이와 같이 소방공무원들의 사건현장은 사건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충격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에도 많은 정신건강의 적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소방업무 환경에서 오는 우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정신건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소방공무원들이 출동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충격과의 개연성을 설명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방서에 근무를 하면서 화재 진압 이외에도 긴급 시 응급 진료 서비스와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건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소방공무원들의 사건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정신간호 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

소방공무원들의 활동하는 현장은 대부분이 재난 현장속의 붕괴된 건물이나 유독가스가 뿜어 나오는 화재 현장이며 인명구조를 필요로 하는 긴박한 현장이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신체의 손상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직접적인 외상성 사건과 동시에 각종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일차적으로 접촉하여 그들을 구조하고 응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신화영, 2012). 또한 출동 현장까지의 접근 하는 순간에도 응급환자들을 위해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상자를 일차적으로 접하면서 끔찍한 사건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 된다.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 요인은 화재진압활동에서 발생 되는 일산화탄소나 유독가스에 노출이 되어있으며 거의 모든 직무는 위험과 직결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박미영, 2012).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할 확률이 경찰공무원1.24% 직업군인 0.04% 일반직 공무원 0.30%인데 비해 소방공무원은 1.2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방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소방직무의 위험성을 보여준다(우하린, 2008).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이상구, 2007; 김정만, 2007) 소방직무로 인한 소방공무원들의 교대근무의 부담감, 수면부족, 역할혼돈, 업무 부담감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요인에 대한 취약점을 설명해주고 있다. 복잡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해진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는 물론 정신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방공무원들의 소진을 예방하는 것은 건강한 삶의 질은 높여주는 것에 필요한 요소일 것이다.

2. 우울의 의의

우울은 의욕저하와 우울감을 주요증상으로 주요 증상하여 다양한 인지 및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증상으로(강석화, 2012), 식욕감소, 체중감소, 소화기 장애등의 신체증상과 정서적, 심리적, 행동적으로 인지적인 면에서 여러 특성을 가진다. 우울증상은 인지적으로 주의집중의 곤란, 기억력이나 판단력의 저하 등이 있으며 일상생활에 의미나 흥미가 감소하고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된다. 슬픔이나 공허함, 죄책감등의 정서적 증상과 함께 대안관계 위축 등을 나타낸다. Horowitz, *et al.*,(1980)의 연구에서는 외상피해자들이 긴장감, 공포감, 갑작스러운 두려움 등의 불안증상과 우울한 기분, 심한 절망감 무기력 및 자기비하감등의 우울증상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주요 소방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우울 증상이 현저히 증가한다고 나타난다(김대성, 2005; 임혜현, 2007). 정운경(2008)역시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우울감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심리적변인중 우울이 사건충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대처방식이란 일상생활에서 직면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반응으로 문제 해결방식과 행동 전략을 의미한다(Folkman & Lazarus, 1984). 또한 Lazarus & Folkman(1984)은 대처를 스트레스와 긴장을 감소하고 인내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정의 하였다. 스트레스대처에는 주로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어느 한부분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 문제해결방식과 행동전략은 주로 적극적 대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서 외부 사건을 직면하여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극단적인 스트레스 사건에 다양한 형태로 노출이 되었다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장기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대처방법은 꼭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스트레스대처법은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이나 사건충격을 완화시키고 건강하게 항상성을 유지하게 할 것이다. 유지현(2006)은 높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주로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경직되고 회피하는 등의 소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4. 사건충격

사건충격 또는 외상사건이라고도 하는 정의는 실제로 죽음이나 죽는 것과 같은 위협이 가해진 사건, 혹은 심한 부상,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적 온전성에 대한 위협을 경험, 목격하거나 직면한 적이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사건을 겪은 개인의 반응은 강한 두려움, 무력감, 공포를 포함한다(APA, 1994). 소방공무원들의 대부분의 업무현장은 끔찍한 사고 현장이나 스스로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위급에 처해서 시각을 다투는 사람들을 보는 것의 연속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현장에서의 노출은 직접적인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도 그들이 호소하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노출역시 사건충격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방공무원들의 직업에 의한 지속적인 노출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심리적인 취약성은 소방공무원들에게는 끔찍한 사건충격이 되기도 한다. 소방공무원의 업무현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외상사건에 자주 노출될 뿐 아니라 다소 심각성이 덜하지만 반복적인 사건들도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진압요원, 구조대원, 응급대응요원들은 사건충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소방방재청, 2008). 그리고 사건에 대한 노출이 반복적으로 자주 일어나면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사고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건충격은 신체,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사건충격은 소방공무원의 업무특성 상 상시 노출되는 스트레스나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는 물론 심리적 영역을 위협하고 이는 본인은 물론이며 이들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들의 건강 및 안전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과학적이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I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대상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사건충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본연구의 목적, 설문조사내용 및 설문지 작성법에 대한 서면내용을 읽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일 개 도시의 소방행정, 구조, 구급활동 및 화재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을 할당 표집 하였다. 대상자수는 G*power 3.1.2(2009)에 따라 유의수준(α) 0.05, 중간크기의 effect size $d=.15$, 검정력($1-\beta$)0.95을 기준으로 다중회귀분석에서 필요한 표본 수에 대해 독립변수 6개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와 표본크기 최대 탈락률 20%정도를 고려하여 200부를 배포하였다. 불완전 하고 누락된 응답과 일주일이내 사건경험이 없었던 65부를 제외하고 총 13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연구 도구

1)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우울은 정상적인 기분변화로부터 병적인 우울상태까지 연속선상에 있으며, 근심, 침울함, 무력감, 무가치감, 상실감을 나타내는 정서 상태이며 본 연구에서는 Beck(1967)이 우울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21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이영호·송종용(1991)이 번안한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우울증상에 따라 기술되어진 4개의 문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된 각 문항은 0-3점 척도로 채점된 것이다. 총점은 0점에서 63점까지로 0-9점은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은 가벼운 우울상태, 16-23점은 보통 정도의 우울 상태, 24-63점은 심한 우울 상태로 분류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함을 나타낸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Lee와 Song의 연구(1991)에서는 Cronbach's α 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 스트레스대처방식 척도(The way of coping checklist)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68개의 문항을 박애선·이영희(1992)가 우리 실정에 맞는 진술문으로 번안한 후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요인으로 축출한 것에서 문제해결 16문항, 조력추구 5문항 총 21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사용하지 않은' 0점에서 '아주 많이 사용' 3점까지의 4점 Likert 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애선·이영희(1992)의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97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문제해결 .96, 조력추구 .91이었다.

3)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 Revised Korean version: IES-R-K)

Horowitz, Winer, & Alvarez(1979)가 외상 사건의 노출에 따른 외상성 스트레스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 보고식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 IES)를 Weiss와 Marmar(1997)가 과각성 증상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IES 수정판(Impact of Event Scale Revised: IES-R)을 은현정 외(2005)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를 실시한 한국어 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mpact of Event Scale Revised Korean version: IES-R-K)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PTSD 증상을 조사하는 대표적인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4가지 하위요인, 과각성 6문항, 회피 6문항, 침습 5문항, 수면장애 및 정서적 마비 해리증상 5문항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는 특정 스트레스성 사건을 정해서 지난 1주 동안 얼마나 고통 받고 힘들었는지를 '전혀 안 그랬다' 0점에서 '매우 심했다' 4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총 점수범위는 0점에서 88점의 범주에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척도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임상적 진단을 위한 절단점 으로는 여러 연구에서 제시한 민감도가 1.0이면서 특이도와 효율성이 가장 높은 점수인 24/25점을 경계로 24점 이하를 정상군, 25점 이상을 PTSD군으로 분류하였다. 은현정 외(2005)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0.69-0.83이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89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전체 .97, 하위영역인 과각성 .90, 회피 .90, 침습 .92과 수면장애, 정서적 마비 및 해리증상 .83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였으며 헬싱키선언에 입각한 윤리적 고려를 통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전 소방본부 대응 구조과 담당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리고 개인의 사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비밀유지를 약속하였으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을 배부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 for Window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건충격, 우울, 스트레스 대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2) 제 특성에 따른 사건충격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4) 대상자의 사건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건충격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92.6%이었고, 연령은 30-39세가 40.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40-49세 31.1%, 20-29세 14.8%, 50-59세 14.1% 순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68.9%로 미혼보다 많았고,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73.3%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무교가 52.6%로 가장 많았고 불교가 30.4%였다. 근무부서는 안전센터근무자가 74.8%, 소방서 15.6%, 구조대 8.9% 순이었으며, 총 경력은 15년 이상이 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 미만인 28.9%이었다. 사건출동경험은 한 주에 없음 43.0%, 한번 41.5%였고, 사건현장 경험은 한 주에 10회 이하가 80.0%, 11-20회가 15.6%, 그리고 21회 이상인 경우도 3.7%이었다.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개인 상담이 52.6%, 가장 적합한 장소는 기타 33.3%, 근무지 24.7%, 정신보건센터 23.7%, 정신과병의원 17.8%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건충격은 성별에서 남자일 때($t=4.03$, $p<.001$), 결혼상태가 기혼일 때($t=2.33$, $p=.021$), 사건출동경험이 한주에 2회 이상인 경우에 3회 이상보다($F=3.92$, $p=.010$)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회피, 침습, 수면장애, 정서적 마비 및 해리증상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과각성, 회피와 수면장애, 정서적마비, 해리증상 결혼상태가 기혼인 경우에 미혼보다 높았고 수면장애와 정서적 마비, 해리 증상에서 충격적 경험이 1주에 3회 이상인 경우가 한번이하나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건충격(N=135)

일반적 특성		n(%)	사건충격									
			과각성		회피		침습		수면장애, 정서적 마비 및 해리증상		전체	
			M(SD)	t/F p	M(SD)	t/F p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성별	남자	125(92.6)	1.9(2.83)	2.04	2.7(3.04)	5.29 <.001	3.0(3.20)	4.29 <.001	1.9(2.36)	1.90 <.001	9.5(10.53)	4.03 <.001
	여자	10(7.4)	0.6(1.90)	.063	0.5(0.97)	1	0.8(1.32)	<.001	0.5(1.27)	1	2.4(4.72)	1
연령 (세)	20-29	20(14.8)	1.4(2.37)	1.68 .175	2.0(3.03)	.91 .439	2.5(2.65)	.50 .681	1.2(1.15)	1.48 .222	7.0(8.27)	1.12 .343
	30-39	54(40.0)	1.5(2.20)		2.4(3.01)		2.9(3.41)		1.8(2.21)		8.7(9.81)	
	40-49	42(31.1)	1.9(2.70)		2.5(2.74)		2.5(2.44)		1.8(2.12)		8.6(9.33)	
	50-59	19(14.1)	3.1(4.34)		3.5(3.44)		3.5(4.21)		2.7(3.60)		12.7(15.07)	
결혼 상태	기혼	93(68.9)	2.2(2.99)	2.29	2.9(3.05)	2.11	3.1(3.39)	1.54	2.1(2.60)	2.26	10.2(11.21)	2.33
	미혼	42(31.1)	1.1(2.12)	.024	1.7(2.72)	.037	2.2(2.46)	.126	1.3(1.44)	.025	6.3(7.69)	.021
학력	고졸 이하	36(26.7)	2.0(3.38)	.36	2.3(3.08)	-.42	2.7(3.50)	-.25	1.7(2.69)	-.49	8.7(11.88)	-.21
	대졸	99(73.3)	1.8(2.55)	.721	2.6(2.97)	.679	2.8(3.03)	.802	1.9(2.19)	.625	9.1(9.83)	.834
종교	무교	71(52.6)	1.7(2.40)	1.41 .233	2.7(2.96)	2.36 .057	2.9(3.07)	.44 .782	1.9(2.04)	.76 .554	9.3(9.39)	1.18 .321
	불교	41(30.4)	1.9(3.37)		2.1(3.06)		2.6(3.43)		1.7(2.73)		8.3(12.17)	
	가톨릭	6(4.4)	1.5(2.35)		2.0(2.53)		3.5(2.07)		1.3(1.37)		8.3(7.12)	
	기독교	13(9.6)	1.5(2.18)		1.5(2.50)		2.2(2.42)		1.4(1.66)		6.5(7.63)	
	기타	4(3.0)	5.0(4.24)		6.3(2.87)		4.3(5.32)		3.5(5.00)		9.0(16.99)	
근무 부서	소방서(행정)	21(15.6)	1.4(2.16)	.26	1.9(2.56)	.64	2.0(2.31)	.98	1.3(1.85)	.70	6.5(8.28)	.72
	안전센터	101(74.8)	1.9(2.98)	.770	2.7(3.11)	.528	3.0(3.41)	.377	2.0(2.51)	.497	9.5(11.08)	.488
	구조대	12(8.9)	1.9(2.23)		2.5(2.78)		3.2(1.70)		1.8(1.34)		9.4(7.12)	
경력 (년)	3>	39(28.9)	1.1(2.02)	1.28 .281	1.8(2.95)	.98 .482	2.3(2.79)	.52 .723	1.2(1.52)	1.60 .178	6.4(8.38)	1.14 .342
	3-5	15(11.1)	1.7(2.40)		2.4(2.97)		2.6(2.92)		1.5(1.68)		8.3(9.38)	
	6-9	22(16.3)	1.8(2.34)		3.0(2.79)		9.6(9.21)		2.1(0.88)		9.6(9.21)	
	10-14	9(6.7)	1.8(1.72)		2.6(1.67)		2.6(0.73)		1.6(0.88)		8.4(3.17)	
	≥15	50(37.0)	2.4(3.57)		3.0(3.22)		3.2(3.84)		2.4(2.97)		11.0(12.91)	
충격적 사건 경험 (회/1 주)	0a	58(43.0)	1.5(2.18)	2.34 .077	2.1(2.65)	1.56 .203	2.1(2.84)	4.69 .004 c,d>a	1.3(1.78)	6.86 <.001 1 c>a, b	6.9(8.74)	3.92 .010 c>a, b
	1b	56(41.5)	1.8(2.66)		2.6(3.04)		3.0(2.58)		1.8(1.89)		9.2(9.24)	
	2c	8(5.9)	3.0(5.53)		4.0(4.07)		5.1(5.62)		4.5(4.60)		16.6(18.55)	
	≥3d	10(7.4)	3.7(3.37)		3.7(3.62)		5.1(3.84)		3.4(3.24)		15.9(13.26)	
원하는 상담 형태	10≥	108(80.0)	1.8(2.66)	.21 .814	2.4(2.92)	1.02 .363	2.6(3.09)	1.57 .211	1.7(2.15)	2.11 .125	8.4(10.06)	1.15 .311
	11-20	21(15.6)	2.2(3.47)		3.2(3.56)		3.5(3.19)		2.3(2.87)		11.2(12.09)	
	≥21	5(3.7)	2.0(2.83)		3.6(1.67)		4.6(3.91)		3.6(3.21)		13.8(9.04)	
상담 장소	개인상담	71(52.6)	2.1(3.16)	.75 .525	2.8(3.26)	.57 .635	3.0(3.59)	.41 .745	2.0(2.60)	.54 .658	9.9(11.73)	.62 .604
	집단상담	4(3.0)	0.5(1.00)		1.3(1.50)		2.0(1.41)		0.8(0.96)		4.5(4.20)	
	특강	19(14.1)	1.5(2.70)		2.2(3.01)		2.3(2.40)		1.5(1.98)		7.5(9.42)	
	기타	41(30.4)	1.6(2.18)		2.3(2.61)		2.7(2.75)		1.8(2.05)		8.4(8.55)	
상당 장소	근무지	33(24.4)	1.8(2.49)	.72 .543	2.8(2.98)	.88 .453	3.0(2.21)	1.04 .376	1.6(1.71)	.57 .637	11.1(13.65)	.83 .480
	정신 보건센터	32(23.7)	2.4(3.76)		3.0(3.62)		3.4(4.36)		2.3(2.98)		7.8(10.61)	
	병의원	24(17.8)	1.6(2.68)		2.1(2.81)		2.3(3.06)		1.8(2.55)		7.8(10.61)	
	기타	45(33.3)	1.5(2.21)		2.1(2.60)		2.3(2.47)	1.6(2.06)		7.6(8.50)		

2. 대상자의 우울, 스트레스대처방식 및 사건충격 정도

대상자의 우울은 평균 5.1(±5.94)점,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전체 평균 26.8(±13.13)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문제해결 20.1(±9.72)점, 조력추구 6.7(±3.86)점 이었다. 사건충격 전체 평균은 9.0(±10.37)점이고, 하위영역별로는 과각성은 1.8(±2.78)점, 회피는 2.5(±2.99)점, 침습은 2.8(±3.15)점, 수면장애, 정서적 마비, 해리증상은 1.8(±2.33)점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우울,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사건충격 정도(N=135)

변수		Min	Max	M	SD
우울		0	39	5.1	5.94
스트레스 대처	문제해결	0	44	20.1	9.72
	조력추구	0	16	6.7	3.86
	전체	0	60	26.8	13.13
사건충격	과각성	0	16	1.8	2.78
	회피	0	11	2.5	2.99
	침습	0	18	2.8	3.15
	수면장애, 정서적 마비, 해리증상	0	14	1.8	2.33
	전체	0	59	9.0	10.37

3. 우울,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사건충격간의 상관관계

대상자들의 사건충격과 우울,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울($r=0.52, p<0.001$)과 사건충격과 유의한 정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우울,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사건충격 간의 상관관계(N=135)

	우울 r (p)	스트레스 대처		사건 충격 r (p)
		문제해결 r (p)	조력추구 r (p)	
우울	1.00			
스트레스대 처	문제해 결 -0.06 (0.488)	1.00		
	조력추 구 -0.13 (0.138)	0.84 (<.001)	1.00	
사건충격	0.52 (<.001)	-0.04 (0.615)	-0.08 (0.353)	1.00

4. 소방공무원의 사건충격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사건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건충격과 관련성 있는 변수인 우울, 스트레스 대처와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하게 나온 성별, 결혼상태, 충격적 사건경험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소방공무원의 사건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beta=.52, t=7.26, p<.001$), 성별에서 여자($\beta=-.19, t=-2.65, p=.009$), 충격적 사건경험에서 세 번 이상($\beta=.16, t=2.14, p=.034$)이었고, 이들 변수의 사건충격에 대한 설명력은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지수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분석하였다.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나 이 연구에서는 1.002~1.008로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소방공무원의 사건충격에 미치는 영향요인(N=135)

변수	B	S.E	β	t	P	Adjusted R ²	F	p
(상수)	4.54	1.03		4.41	<.001		21.67	<.001
우울	0.92	.13	.52	7.26	<.001	.27		
여자	-7.52	2.84	-.19	-2.65	.009	.30		
세 번이상 출동	6.07	2.836	.16	2.14	.034	.43		
							VIF 1.002~1.008, Durbin-Watson: 1.948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우울,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사건충격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사건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구미시 135명소방공무원이었다.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건충격정도로 성별, 결혼상태, 일주일간 충격적 사건 경험 수에 따라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사건경험을 연구한 최혜경(2010)과도 비슷한 결과로 남성 소방공무원들이 여성보다 사건충격정도가 높았던 것은 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부서에 남성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 실제 사건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들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충격적 사건경험이 일주일에 2회 이상 있는 경우 사건충격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진환(2006)의 소방공무원들의 출동횟수는 신체적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보고 출동횟수가 많을수록 신체적증상의 호소정도가 높고 외상적 경험이 의학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소방공무원의 경력이 많을수록 사건충격 정도가 높은 경향이었는데 이는 윤정금(2002)의 연구에서 경력이 많을수록 외상성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스트레스에 많은 시간 노출되어 있으며 장기간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건충격 현장에 투입되어 사건충격이 누적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출동 업무는 각종사고현장에 노출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을 뿐 만 아니라 구조, 구급 및 처치하는 과정은 2차 스트레스요인이 되므로 출동 횟수가 높을수록 사건충격 정도가 높아지므로 출동에서 매번 돌아올 때 마다 이를 완화시키는 정규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소방공무원의 결혼상태 별로는 기혼이 미혼보다 사건충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혼 상태에서는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사건충격이 유의미한 것은 사건현장에서의 희생자나 부상자가 가족을 이루고 있는 기혼자에게는 마치 자신의 가족이 희생자인 것처럼 지각하고 외상성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인지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Fullerton, 1992). 더욱이 한국의 정서는 가족애를 더욱 중요시 하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있는 기혼자는 구조자 들이 자신의 가족같이 느껴질 것으로 여겨진다. 복잡해지고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의 각종 외상사건은 심각성이나 종류 또한 다양해짐으로써 충격적인 외상사건에 대한 소방공무원들의 출동 횟수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소방공무원의 외상성 스트레스의 예방은 정부와 조직 차원에서의 지원과 배려가 요구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우울점수 평균은 5.1(±5.94)점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대처방식은 전체평균 26.8(±13.13)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문제해결 20.1(±9.72)점 조력추구 6.7(±3.86)점이었다. 신화영(2012)의 연구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적 대처의 평균은 22.7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적극적 대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문제되는 행동이나 주변조건을 변화시켜 갈등상황을 해결하려는 문제중심적 대처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보이고 좌절 상황에서도 자신을 동기화시키고 스트레스에도 합리적 사고가 쉽게 손상되지 않는다(Bar-on, 2000). 소방공무원과 대처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대부분은 소극적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대처에 대해서 유지현(2006)은 소방공무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소극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점모(2008)의 연구에서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보이는 소방공무원들은 감정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소극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명(2011)역시 소방공무원들은 외상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소극적 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역으로 해석해봤을 때 적극적 대처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사건충격에 대해 해결하려는 에너지가 외부로 표현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대처방식이 실제로는 함께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효과를 분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진다면 사건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에 스스로 업무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는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은 환경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처행동에 대해 훈련받는다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울이 사건충격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현(2006)에서도 우울과 사건충격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우울은 여러 가지 복합 증상으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으

며 우울과 사건충격은 서로 완충역할보다는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울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기도식이 부정적인데 이는 미래경험에 대한 지각과 구조화에 영향을 주어 선택적으로 긍정적인 정보를 배제하고 부정적인 정보를 과장하게 한다(Beck, 1967). 이에 부정적인 도식화 보다는 긍정적인 도식화의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우울을 다뤄주는 프로그램이 적기에 투입되어 우울감을 완화시켜주며 지속적인 관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소방공무원의 사건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과 일주일간 충격적 사건 세 번 이상 경험이 소방공무원의 사건충격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성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횟수는 본 연구와 같이 주 단위의 출동횟수는 아니지만 월 단위를 연구한 오진환(2006), 최은숙(2000)연구에서와 같이 출동횟수는 외상성 스트레스나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사건의 노출빈도가 크거나 노출된 사건의 스트레스 정도가 크다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사건충격은 명확히 구분하여 나누어지는 개념이기보다는 넓은 범주의 정신건강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들의 출동현장은 대부분의 상황이 긴박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출동횟수가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끔찍한 충격현장을 많이 목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은 출동횟수가 많을수록 외상사건의 경험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은영, 2004).

강경화(2011)는 사건충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은 출동업무 자체가 의학적 문제를 초래하는 위험요인으로 심각하고 만성적인 신체적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빈번하게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자체가 사건충격에 대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격적인 현장을 피아하는 사건출동부서에서는 단기간으로 하는 근무여건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참한 현장의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사건 충격은 무력감 및 우울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지현(2006)의 연구에서도 우울과 사건충격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우울과 사건충격인 정신건강에 유해하게 작용할 것이고 이러한 증상은 사회기능은 물론이며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와 사건충격(IES-R) 도구를 사용하여 사건충격과 비슷한 정신건강 영역인 PTSD와의 관계를 살펴본(최혜경, 2010; 권순찬, 2007)연구결과 에서도 사건충격이 높을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역시 사건충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는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다. 여성과 사건충격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의 조사 대상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일반화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 성별비율을 좀 더 확대하고 균등하게 배분하여 연구함으로써 성별에 의한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건충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사건충격감소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사건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재해, 재난 현장에서의 피해자들은 많은 관심 속에서 사고 이후의 상황까지도 예측하여 직접적인 중재가 투입되는 반면 그 현장에서 함께 경험한 소방공무원은 직업이라는 이유로 많은 상황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는 대형 참사사건에 투입된 구조, 구급요원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실정은 상사의 개인적 배려에 따라 위로 차원에서 임기응변적이고 비구조적이며 비전문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와있다(윤정금, 2002). 더불어 각 지역 정신보건센터나 재난피해자심리지원센터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건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1차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고위험 대상자를 선별하여 전문가 상담 후 치료 연계가 되도록 도와야 하며, 사건경험 후 반드시 미국의 위기 상황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CISM)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충격완화를 시킴으로써 심한 우울증이나 PTSD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으며 평소에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배우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강경화. 2001. 일부소방공무원의 음주와 직무스트레스와의 관련성. 가톨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석화. 2012.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순찬. 2007. 일부도시 남자 소방관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관련요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은영. 2004. 일부소방공무원의 업무별 출동충격후 외상성 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광석. 2008.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및 피로와의 관련성.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대성, 이경용, 류향우. 2005. 직무스트레스 및 업무부담요인이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봉명. 2011.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대처, 해리 경험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리. 2000. 직무스트레스의 성차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정. 2011.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관한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만. 2007. 소방관의 근골격계 증상과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의학회지. 16(2): 25-31.
- 박미영. 2012. 집단미술치료가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애선, 이영희. 1992. 기혼여성의 성역할 특성과 스트레스지각이 스트레스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4(1): 69-80.

- 배점모. 2008. 소방대원의 출동충격, 사회적지지, 대처행태와 PTSD증상 및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소방방재청. 2008.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 신화영. 2012. 소방공무원의 외상성 사건 경험과 PTSD증상의 관계: D유형 성격과 대처 방식의 조절 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윤경. 2008. 지역소방공무원에서 사고 및 재해 경험과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진환. 2005. 소방대원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소진 및 신체적 증상의 영향요인 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우하린. 2008.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탈진에 관한 연구: 경기도와 서울중심으로. 서울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지현. 2006. 소방공무원의 PTSD증상과 정서상태,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금. 2002. 소방대원의 외상성 스트레스에 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예심. 2008.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사건충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은현정, 권태완, 이선미, 김태형, 최말례, 조수진. 2005.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4(3): 303-310.
- 이경진, 김동원, 허현택. 2009. 인천지역 일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련요인 및 직무스트레스요인과의 상관성. 대한산업의학회. 21(3): 267-275.
- 이상구 · 이용규. 2007.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유발 원인과 결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직무특성, 역할혼돈 동료관계와 조직몰입을 중심으로. 한국화재소방학회. 21(2): 74-86.
- 이영호 ·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임상심리학회지. 10(1): 98-113.
- 임혜현. 2007. 남성 생산직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명옥. 2009. 외상사건에의 노출과 업무특성, 심리사회적 자원이 공감피로, 소진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숙. 2000. 소방대원이 출동충격스트레스에 관한 구조모형.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혜경. 2010. 소방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정서적 탈진, 신체증상, 사회 및 직업기능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Baron. R. 2000. Emotional and Social Intelligence: Insights from the Emotional Quotient Inventory. In R. Barn & J.D.A. Parker(Eds.), *The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363-377. San Francisco: Jossey-Bass.
- Beck. A. T.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Fullerton, C. S., J. E. MacCarroll., R. J. Ursano and K. M. Wright. 1992. Psychological Responsiveness of Rescue Workers: Firefighters and Trauma.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2(3): 371-378.
- Horowitz. M., N. Winer., W. Alvarez. 1979. Impact of Event Scale: A Measure of Subject Stress. *Psychosom Mes*. 41: 209-218.
- Lazarus, R. S. & S. Fol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Weiss, D. S. & C. R. Marmar. 1997. Th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n *Assessing Psychological Trauma and PTSD*. ed. by J. P. Wilson and T. M. Keane. New York. Guilford. 399-411.

金喜淑: 경북대학교에서 간호학박사학위(논문제목: MBTI활용정신간호중재프로그램이 알코올중독환자의 우울, 대인관계 및 금주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2004년 2월)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북대학교 간호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구미시정신보건센터장과 대구시재난피해자심리지원센터장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재난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인지행동요법을 적용한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이 소방공무원의 문제중심 대처방식, 직무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2013)”, “교사를 위한 학생자살위기관리 매뉴얼 개발(2011)” 및 “초중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2011)” 등의 논문과 프로그램 개발 실적이 있다 (hskim8878@knu.ac.kr).

李昊辰: 경북대학교에서 간호학석사학위(논문제목: 출동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 2011년 2월)을 취득한 후 현재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박사 재학 중이다. 현재 대구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으로 재직 중이며 대구시 재난피해자심리지원센터 요원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과 재난경험자들 특히 소방공무원과 지역사회 고위험 직업군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지각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2011)” 등이 있다(hojin257@hanmail.net).

朴倬爨: 경북대학교에서 간호학 석사학위(논문제목: 인터넷 중독 통합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인터넷 중독 경향 고등학생에게 미치는 효과, 2010년 2월)를 취득하였다. 2013년 2월 경북대학교 간호학 박사 수료를 하였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 까지 구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구미시 소방공무원 및 대구시 재난심리지원센터 요원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였다. 주요 논문으로는 “MBTI 활용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이 직장인의 자존감, 대인관계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2010)” “MBTI 활용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이 직장인의 자존감, 대인관계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2010)”,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의사소통 능력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2011)”, “청소년의 인관관계가 자살위험성

에 미치는 영향(2012)” 등이 있다(gumih033@nate.com).

투 고 일: 2013년 01월 04일

수 정 일: 2013년 05월 10일

게재확정일: 2013년 05월 15일

Influencing Factors on Impact of Event in Firefighters

Hee Sook Kim, Gyeong Ran Park, Ho Jin Lee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impact of event in firefighters. **Method:**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35 firefighters from fire stations in G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15 to May 1, 2011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bout depression, stress coping style, and impact of event scal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with Scheffe of Post Hoc,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18.0 program. **Results:** Impact of event has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r=.52$, $p<.001$). Impact of event was influenced by depression($\beta=.52$, $p<.001$), female($\beta=-.19$, $p=.009$), and mobilization times($\beta=.16$, $p=.034$). These variables explained 43% of the variance in impact of event. **Conclus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various effective strategies to decrease depression and mobilization times are important in reducing the impact of event in firefighters. Based on the outcome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emphasizes the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in order to decrease impact of event in firefighters.

Key words: firefighter, depression, stress coping, impact of event